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12. 11. 2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2.11.28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오상철 의약과장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와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및 진료범위(안 제4조 ~ 제9조)
 - 지원대상 : 해당연도 서울특별시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및 저소득

총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

- 진료범위 : 구강건강관리 외 저소득층 아동 정서치료 서비스 지원 가능
- 2)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 ~ 제12조)
- 지역협의체 구성원 : 민간단체 대표자, 치의학 전문가, 보건소장 등 10인 이내
- 3) 지역협의체 기능
-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 -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선정, 진료범위, 지원액의 기준,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,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.

0 마포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의료지원 대상 선정, 진료범위, 지원액의 기준,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.

서울시 아동·청소년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 치아우식증(충치)으로, 서울시 충치 유병률을 보면 인구 1,000명 당 2001년 55명이었으나 2010년 180명으로 늘어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, 지역아동센터 3-4학년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56.4%로 전국 평균 32.8%보다 높게

나타나고 있음.

마포구 보건소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2008년 69.4%에서 2011년 40%로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따라서 구강검진, 구강진료, 구강예방교육,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아동·청소년의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며,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